



설비건설 회사의 보안

김현회 / 원켄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

국내 굴지의 금융 기관들이 해킹에 따른 전산 사고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특히 고객 정보가 유출되거나 멸실된 경우는 상당액의 금전적 보상도 따를 것으로 보아 회사의 손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고객들의 불신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이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로 오랜 기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우리 협회 회원사의 경우 개인 고객의 정보를 직접 취급하는 일이 거의 없어 걱정이 덜되지만 대부분의 기업 정보가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는 만큼 그 보안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2011년 4월~ 2011년 5월 자재 동향)

자재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STS관 BASE 인하. STS용접부속 변동 없음 - 강관 4월 신탁가 발표 예정. 강관용접부속 네고율 인상. 강관나사부속 인상된 협가 발표 - 동관 4월 LME 인하. 4월 초 상승 후 중순부터는 약보합세 - COIL, 철판류 4월 하순 인상되었고 5월 적용 예정 - PVC 협가 인상 5월부터 적용 예정. 유화제품 대부분 인상 예정
강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시장은 4월 중순 톤당 16만원 인상된 신탁가 출시 예정 - 용접부속은 4월 중순 네고율 5% 인상 발표 - 나사부속은 4월 신탁가 출시, 적용일은 대리점 마다 상이
동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LME 시세는 383원 인하된 10,992원으로 확정 - 구리 원자재 가격은 4월 초순 강세를 보였고, 중순에는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음. 4월 하순까지 움직임이 없다면 5월 LME 시세는 대략 100~300원 하락 전망. - 동용접봉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음. 미국 신용등급하락으로 달러보다는 현물의 중요성 부각되며 금, 은의 가격이 상승하여 동용접봉 가격도 강한 상승세에 있음
STS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STS관 BASE는 전월에 비해 100원 인하됨 - STS관은 니켈 국제 원자재 시세가 2만 5천 9백불까지 하락하여 4월 말일까지 원자재 시세의 움직임이 없다면 전월과 동일 또는 소폭 인하 예상됨. 니켈 원소재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 - STS 나사 및 용접 부속은 당분간 변동 없을 것임
구매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상될 자재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단가 동결 또는 선구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함 - 다양한 변수에 의하여 국제 자재 시세의 변동이 잦아 예측을 통한 선구매 전략은 당분간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금융권 주요 전산 사고 일지

일시	금융기관	사고내용
2005년 5월	외환은행	해킹으로 인터넷뱅킹 고객 7,200여만원 피해
2008년 5월	저축은행 7곳	미국인 해커 고용해 웹사이트를 통해 내부망 접속 300만명 고객정보 유출
2008년 10월	농협	홈페이지 등에서 해킹으로 고객정보 유출, 돈으로 사건 해결
2010년 12월	씨티은행	추위로 인한 네트워크 설비 침수로 6시간 업무 중단
2011년 4월	현대캐피탈	고객 42만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1만3,000명 대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해킹
2011년 4월	농협	시스템 파괴 명령으로 카드 거래기록 유실

(자료 : 원칸네트웍스, 2011년 4월 언론보도 정리)

설비사의 전산 시스템은 크게 인사, 재무, 총무 등 경영지원 관련 시스템과 인력, 자재, 실행 관리 등 현장 관련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큰 회사는 ERP 등을 도입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는 단순한 모듈 수준의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간단히 엑셀 수준으로도 잘 운영하고 있다. 보안에 있어 회사의 시스템이 얼마나 비싸냐, 규모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그 보다는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본을 잘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번 금융 사고도 메인 시스템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방치한 것 등이 사고의 빌미였다고 한다.

최근 소프트포럼이라는 회사가 해킹 방어를 위하여 5가지 기업 보안 수칙을 제시했다. 이를 중심으로 우리 회원사들도 대책을 강구하면 좋을 것이다. 간단히 살펴 보면 먼저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DB 암호

화 솔루션은 필수다. 이는 만약의 경우 DB 정보가 유출이 되더라도 해당 데이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셋째로 DB보안 제품은 성능과 안정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 넷째는 비용이 들더라도 실력있는 업체에 유지 보수 계약을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보안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아울러 직원들에 대한 보안 교육과 데이터가 유실되더라도 바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 시스템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다. ☉

김현회(金炫會) 총괄본부장 프로필



- 現원칸네트웍스(구 설비넷) 사업총괄 본부장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91년)
- 삼성그룹 공채 입사(91년, 삼성화재 발령)
- 홍보실 근무(사보, 사장단 연설문 작성, 사내방송PD, 언론·인터넷 담당 등)
- 삼성그룹디자인연구원 멀티미디어학과 및 UCLA Extension(뉴미디어, 스토리텔링 등) 과정 수료
- 시장개발 및 영업기획 업무 담당(PDA영업, 리플렛 기획 등)
- 인터넷사업팀 근무(삼성화재 전국애니카서비스망 구축, 전자 인터넷사업 기획 운영 등)